

전북대, 외부 연구비 수주 '급상승'

1081건 과제 1056억여원... 전년대비 118억 늘어 중점연구소 지원 선정 등 대형 정부 지원 원동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가연구개발 R&D 수주를 통해 받은 연구비가 지난해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탁월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26일 전북대 연구지원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올 상반기에만 총 1,081건에 1천560억여 원의 외부 연구비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973건에 937억여 원에 비해 12.6%인 118억9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전북대 연구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이공계 분야)에 김범석 교수팀(생체안정성연구소·수의학과)과 김형식 교수팀(지능형로봇연구소·전자정보공학부) 등이 선정돼 3년간 각각 21억여 원의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찬희 교수팀(공대 기계설계공학부)도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년간 170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도 원동력이 됐다.

특히 선정된 주요 사업들이 국가나 지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연구들이어서 조만간 우리 실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비 수주액이 지난해 326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도 연구비 수주액 증가의 요인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김범석 교수팀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매개체 감염 질환 제어 연구를 수행한다.

한반도 아열대 기후 변화에 따라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 및 발생 질병의 면역병리학적 기전을 밝히고 실용화 제어기술을 2028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신·변종 매개체 개성 질환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생체안정성연구소가 세계적 거점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전북대 전경.

계획이다. 김형석 교수팀은 농업 무인화를 위한 인공지능과 로봇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에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일으키고, 전북지역을 무인농업 및 관련 사업의 세계적 메카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인공지능 팀을 통해 생체안정성연구소가 세계적 거점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핵심기반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상호 결합하여 다양한 자율농작업 기능을 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발한 자율농작업 로봇 기술을 국내 기업들에 기술 이전하여 상품화개발이 되면 국내는 물론 국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농업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주한 이스라엘 대사 초청 교류 논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8일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해 대대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호센 대사의 이날 방문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농생명 분야가 매우 우수하고,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탄소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전북대의 교류 논의를 위한 것.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농생명 분야 및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역 현안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목표와도 부합하고 있어 앞으로의 교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방문은 전북대가 전북의 대표 거점대학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간 긴밀한 공동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졌다.

호센 대사는 김 총장과의 만남 후 전북대 박물관과 한옥형으로 건립된 건지광장 등을 돌아보며 한국적이면서 공원과 같은 캠퍼스에 감탄했다.

김동원 총장은 "대학과 지역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와 협력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하임 호센 대사가 추진해준 대



전북대가 28일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해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과 및 연구소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전북도교육청은 가을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도내 학교 식생활관, 식자재 공급업체, 대체급식 제공업체 등 112개소를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평소 식재료 검사 시 저품질 식재료 납품업체, 노후급식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급식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은 전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광주식약청, 도·시·군 관계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해 6개반 24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의 적절성, 청결 관리, 유통기한 준수,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산란일자 표시 달걀 사용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학교의 경우 식재료 공급·유

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과 지하수 소독장치(자동 염소투입기)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 등을 점검하고, 비가열 섭취식품 제조업체 식품용수 집중 점검, 이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한 반복 또는 상습적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조리식품, 식품용수(지하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의 수거 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노로바이러스를 비롯

한 식중독균 5종, 총대장균군 등의 검출 여부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생점검 및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상반기 미점검 업체 중 급식인원이 많은 학교, 2식 이상 제공학교, 지하수 사용업체, 식재료 반품 이력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하였고 금번 합동 점검 미점검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시·군 자체 계획 수립 후 연말까지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콘텐츠로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서울 패러디빙서 콘텐츠 전국 공모전 시상식 열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에서는 28일 서울 패러디빙서당에서 '2019 성평등 콘텐츠 대상 전국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한국여성성평등교육진흥원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충북여성재단, 한국여성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27일까지 일반부와 청소년부 등 총 8개 단체 및 개인이 참여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성평등 콘텐츠 대상 전국 공모전은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등 폭넓은 연령층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타파 및 폭력 예방 가치 등을 트렌디한 콘텐츠로 발굴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출품된 응모작 81편에 대한 심사 결과 도내 청소년 출품작 중 애니메이션 '수진이의 외출준비'가 전국 청소년부 금상을, 광고 '꿈 지우개, 편견이 콘텐츠부분 최우수상'을, 일반부의 카드뉴스 '우리는 남매가 아닌 친구를 배워요'가 콘

텐츠부분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총 3편이 한국여성성평등교육진흥원 시상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상으로는 최우수상에 인포그래픽 '직업, 행복을 위한 나의 선택', 우수상에는 1인방송/Mog 반성매매 한 걸음, 장려상에는 광고 '뒤 돌아 볼 수 없는 우리'가 각각 선정돼 총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운애 센터장은 "도민이 직접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회이기에 더욱 빛난 공모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성평등 증진과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당선작들은 성평등 의식조성사업 통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영상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wc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54-3814 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상시적인 공문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시적인 공문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공문서 양을 감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 이날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단은 교원, 일반직, 교무실무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모니터링단은 학교(기관)에 접수된 공문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적 제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자료집계시스템 활용 △공문 게시 활용 △공문서 내용 이해도 △공문서 내용 중복 △공문서 내용 간소화 △제출기한 확보 △공문 수신처 적정성 △공문 보고 적정성 △기타 개선사항 등이다.

특히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향

목에서는 공문이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본연의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있는지, 법적(지침) 근거 없는 장부, 실적 자료, 문서생산을 요구하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했는지, 공문 게시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는지, 일시·대상·장소·내용 등 핵심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본문에 명시했는지, 유사한 보고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공문 시행하여 중복 보고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공문서 관리를 통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자 한다"면서 "공문서 모니터링단의 점검 내용을 분석해 개선사항들을 시정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